



Hello! I am Sister Patricia Mary Wilson (preferring in recent years to be known as “Sister Pat”)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on September 8, 1951, three months after graduation from Langley public high school in Pittsburgh, Pennsylvania. I made final vows on August 15, 1959, the same year in which Mother Claudia invited sisters to volunteer to begin our work in South Korea. I was among the nearly 100 sisters who volunteered, but to my disappointment, I was not chosen (in hindsight a wise decision for all concerned)

Life went on and in the years that followed I ministered happily in Pennsylvania, Arizona and

North Carolina. But a tiny “Korean spark” remained within me. Each summer I was delighted to respond to Sister Jane Ann’s request to present mission appeals, telling of our sisters’ works in Korea and elsewhere.

The years passed and it was time for the 2014 General Chapter to meet in South Korea. As an alternate I did not expect to be there. However,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go when medical circumstances prevented an American delegate from attending. **My time had come!** The “Korean spark” which had smoldered quietly for so long was fanned into a glowing ember!



Following the Chapter, sisters in each Province were invited to become “prayer partners.” Sister Bae Eun Jung and I were linked. I had little expectation that I would ever meet her face-to-face. Imagine our mutual delight when we met at the Korean Provincial House during my recent visit. We recalled our early connections and celebrated our time together before my time in Korea ended in early December.

As a reminder of our friendship I carry a little lined zippered pouch which Eun Jung made for me; knowing my fondness for cats it is in the shape of a cat’s head! This and remembering our recent time together along with our mutual promise of prayer will keep us linked as we journey into the future.





안녕하세요! 저는 패트리샤 메리 윌슨 수녀(Sister Patricia Mary Wilson)입니다. 최근에는 수녀님들이 ‘팻 수녀’라고 부르지요.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랭글리 공립고등학교(Langley public high school)를 졸업하고 난 3 개월 후인 1951 년 9 월 8 일에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1959 년 8 월 15 일에 종신서원을 했지요. 그 해는 바로 마더 클라우디아(Mother Claudia)가 한국에서의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 수녀님들에게 자원을 받은 해입니다. 저는 그 때 지원했던 100 여명에 달하는 수녀들 중의 하나였어요. 실망스럽게도 뽑히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을 고려했던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살아가면서 저는 펜실베이니아와 아리조나,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행복하게 사도직을 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한국의 불씨”가 남아 있었지요. 매년 여름이면 제인 앤 수녀님이 선교 모금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저는 거기에 기쁘게 응답하여 한국과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수녀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2014 년 전체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의원으로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관구 대표 한 명이 건강문제로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드디어 저의 때가 온 거지요! 오랫동안 조용히 연기를 내며 타던 “한국의 불씨”가 불꽃을 내며 활활 타올랐습니다!



총회 이후, 양 관구의 수녀들은 서로 ‘기도 파트너’가 되어주도록 초대받았지요. 저는 배은정 수녀님과 짝이 되었는데 직접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본원에서 은정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그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한국 방문을 마치기 전인 12 월 초에 만나서 처음 기도 파트너가 되었을

때를 회상하고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우정을 기억하기 위해 은정 수녀님이 저에게 만들어 준 작은 파우치 지갑을 가지고 다녀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고양이 얼굴 모양으로 만들어 줬지요! 이 지갑은 서로를 위한 기도를 약속하며 함께 보낸 시간과 함께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우리를 계속 이어 줄 것입니다.

